

석굴암 연구 다각적 접근

신라문화선양회 10~11월 학술회의

신라문화선양회는 10월~11월 '석굴암의 신연구'라는 주제로 제21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신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마련되는 학술회의에서는 '석굴암 학술회의의 정치·사회적 배경(곽승훈)' '석굴암 본존불 및 내벽 불상 연구(박정국)' '토함산 석굴의 점정과 그 배경(장종식)' '석굴암의 건축 원형과 보존(윤재진)' '석굴암과 중국 석굴사원의 관계(배진달)' '석굴암의 연구사 정리(박찬홍)' '석굴암의 경관해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홍광표)' '우리 나라 역사환경 해석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서태양)'가 발표된다.

'화엄사상'으로 본 '온생명' 상즉상입의 연기론적 생명관

양형진교수, 동아시아문화포럼서 발표

오늘날 세계는 과학이 지배한다. 그런데 인간의 복제까지 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과학이 반드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된다. 하지만 '과학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소수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은 육일승천하는 과학의 기세 속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할 새로운 가치를 찾는 지적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동아시아문화포럼(회장 송하경)은 4일 성균관대 종합강의동 31406호에서 '새로운 생명관과 문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4회 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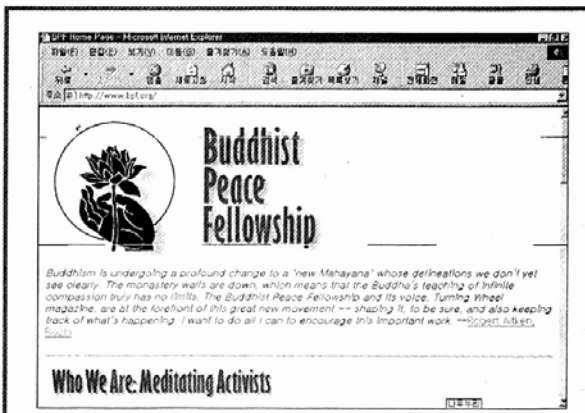
이날 포럼에서 고려대 양형진교수(물리학)는 '생명 세계에 대한 화엄적 이해'를 주제로 새로운 생명관을 정립하고 이에 토대를 둔 문명관에 대해 발표했다. 양교수는 과학자적 소명감으로 '은 삶'과 '온생명'의 회합과 가치를 일깨워 온 서울대 장희익 교수(물리학)의 '온생명론'을 화엄불교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온생명'은 자족적인 생존이 가능한 단위로 지구 전체의 물리 화학적 구조에 정신과 경험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양 교수는 "불교는 서로 상관 없이 보이는 존재자들도 상즉(이 것과 저것이 서로 같아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법계에 있는 일



양형진 교수

체 사물의 상호동일성을 말한다)하고 상입(서로 걸림이 없이 융섭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개념을 연기론이라는 보편적 세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기론적 입장에서 생명 현상에서의 원인과 결과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세계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온생명'은

들의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온생명' 이상의 광범위한 세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또 생명세계가 상즉과 상입, 육상원용(여섯 상이 원만하게 융섭해 상즉상입한다는 것)의 구조를 갖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온생명론은, 지구상의 전생명계 뿐 아니라 생명 세계와 무생명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엄이 요구하는 생명론의 구조는 모든 생명들의 보편적인 존재 방식을 설명하여야 함은 물론 무생명계가 생명계에, 생명계가 무생명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 교수는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광명을 발하듯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다. 그것이 곧 우주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다"며 "이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온생명론과 화엄의 지혜이자 윤리"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평화우의회

열린 마음으로 참여불교 실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불교계 NGO 가운데 가장 대표적 단체는 불교평화우의회(Buddhist Peace Fellowship, 이하 우의회)이다. 이 단체의 본부는 미국에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클릭' 한 번으로 꿈꿀 수 있고, 참여할 수도 있다. 1979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4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종교적 편견의식을 탈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우의회의 △연혁 △사상 △프로그램 △계시관 △소식지 등을 열람·이용할 수 있다.

장애아동 의료봉사

먼저 우의회 활동을 조망하고 싶다면 '연혁'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우의회의 국경을 초월해 20여 년간 방글라데시, 베트남, 티베트,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지역에서 불교의 평화 사상을 일깨우고, 제도화된 무지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또 부처님의 지혜, 자비를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1986년부터 미국의 카이저 재단으로부터 5천달러를 지원받아 '아동 장애인들'을 설치, 태국과 라오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아동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아동 장애인들은 허나같이 땅속에 묻혀있던 '대인지뢰'의 폭발로 인한 것이다. 또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가 6년동원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데도 기여해, 미얀마 민주주의가 첫발을 내딛는 데 크게 공헌했다. 미국에서 핵 실험장지로 악

원폭희생자 추모법회

또 '계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의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 개혁 운동에 시공을 초월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불자 네티즌 자신의 의견도 올릴 수 있다. 한 번의 클릭 또는 불자 네티즌 자신의 이메일을 등재하는 것만으로 인류의 사회적 생애에 공헌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식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탈종교적인 불교 소식지 <터닝 휠(Turning Wheel)>을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bpf.org

가상대담 성낙주의 '석굴암' - 이진기·송태호의 '석굴암'

학술단신

전통예술학회 세미나

한국전통예술학회의(회장 홍운식)는 11월26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한국 전통예술의 비전과 새 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학술회의는 '새 밀레니엄 시대의 예술적 위상-새 시대의 전통예술'을 주제로 한 홍운식 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모두 6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통미술의 미래-이종선(서울시립박물관장) △문화유산의 국악과 그 전망-박병훈(중앙대 교수) △미려사화와 전통건축의 변모-김동현(동국대 교수) △새 밀레니엄 시대의 전통극-김홍우(동국대 교수) △전통무용의 새 창조와 가능성-이선옥(상명대 교수) △새 천년과 새 예술적 패러다임-박승현(다움연구소 기획실장)

열린정신포럼 토론회

원광대학교 열린정신포럼(회장 김성관)은 11월25일 원광대 인문대학 인문소극장 106호에서 인문학적 담론의 활성화와 학제간 연구의 진흥을 위한 제7회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용정 전 동국대 교수가 자연과학 영역에서 '생명과학과 21세기 인문정신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석굴암은 닫힌구조 전설개방설에 따른 연구결과 문제있다'

- 성낙주 -

대담의 주제는 저자와 연구자라는 인격이 아니라 '책'과 '논문'이다. 그래서 '가상 대담'이다. 먼저 '미학'에 묻는다. 연구 대상이나 주제에 비해 문제가 아주 문학적이다. 소설가로서 그런 건가? '미학': 잘 봤다. 소설가로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 작업을 '학문' 형식의 '장작'이라 말한다. 석굴암 자체와 관련 문헌을 주 텍스트로 삼았지만 자료와 자료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는 데는 상상과 직관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때때로 진실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실현 연구'로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 '실현 연구': 못할 것도 없다. 연구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방법론이 다르지 않은가.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할 만큼 편협하지 않다.

▶ 그렇다면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실현 연구': 석굴암 내부의 장마철 결로 현상의 원인과 상부 구조의 공기 통풍 구조를 밝히기 위

최근 석굴암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 성낙주(소설가)가 단행본으로 펴낸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개미고원, 분지 제246호에 소개, 이하 '미학')과 이진기(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송태호(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공동 연구 논문인 '원형 석굴암 상부 구조의 장마철 결로 및 열전달 현상의 실험적 연구'(분지 제247호에 소개, 이하 '실험적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 대담'의 형식을 빌려 두 연구를 비교하는 까닭은, 원형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가 비뚤지 못하 방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는 두 연구 성과물에 말을 걸어 점정에 대한 독자층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해서였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은한수설에서도 실험을 했다. 쉽게 말해서, 일제가 보수하기 전후의 두 모델에, 석굴암의 장마철 환경을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본래의 석굴암 구조는 뜬 위에 크고 작은 돌들이 1m 두께로 열기설기 쌓여 있어서 장마철의 습기 제거와 결로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추측을 할 수 있었다.

▶ 지금 발언에 대해서 '미학'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미학': 미술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석굴암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실현 연구'의 작업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실현 연구'의 석굴암 원형 이해는 '열린 구조' 즉 전설 개방설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동형 천장의 정면과 후면에 통풍구가 있었음을 가정한 통풍구조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학'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언급한다.

외향성의 열린 구조인 불국사와 달리 석굴암은 내향성의 닫힌 구조이다. 이 점을 오해했기 때문에 '실험 연구'의 결과는 미술사학계의 일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만약 나의 이런 주장을 감성에 기초한 '미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흘러들었다면 나 또한 '실험 연구'에 대해 과학에 대한 맹신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실험 연구':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미술사학자가 다들 고증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비취지기 때문이다. 그건 오해다. 나는 과학자다.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접근했을 뿐이다. 따라서 과학보다는 방법론에 방점을 찍어 주기 바란다. '미학':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지만 방법론이라는 것도 그렇다. 인류베터가 아무리 정교해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을 수는 없다. 특히 '실험 연구'의 주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기의 원형 석굴암의 경우, 석굴암의 외부가 다공성 암석층으로 덮여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식으로 쉽게 미술사학계의 일부 주장을 선택하여 실험으로 그것을 뒷받침한다.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장마철 결로현상 상부구조의 통풍 과학적 증명에 초점'

- 이진기·송태호 -

채, 아무리 연구 목적이 결로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찾는 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깊지 못한 태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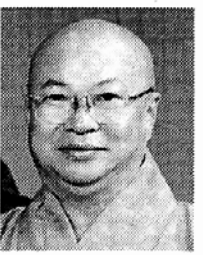
'실험 연구': 기존 학설을 두루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 볼 문제다. 하지만 석굴암의 과학적 보존 문제로 한 정점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미술사학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험 연구'의 주장이 무우류라 할 적도 없다. 겨울철의 성에, 바람, 지하수의 영향 같은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밝혀 놓지 않았는가.

▶ 이쯤해서 대담을 마쳐야겠다. 이정도면 두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을 대강이나마 살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논쟁이라는 것이 다른 주장에 대한 논박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목적에 다가가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논쟁이 석굴암의 실체에 근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언론에서도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 식으로 논쟁을 몰아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재학 기자 (jhyun@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출신식 (2개월 50만원), 슬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늙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감이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